

# 긍정과 부정 사이 '예술과 기술 융·복합'



홍경안 역  
시시일과

예술과 기술의 융·복합은 예술적 표현과 창조적 과정을 기술적으로 통합 또는 교차시키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미학체계를 구축하고 매체 및 표현 방식을 탐구하기 위해 기술의 능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이전과 구분되는 형태의 예술에 기여할 수 있다. 예술과 기술의 융·복합은 표현의 한계를 희석시키며 예술가와 관객 모두에게 색다른 조형의 영역을 제시한다. 혁신적인 기술로 전통적인 미적 관행을 개선하거나 변형시켜 양자 간의 공생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아가 인터랙티브 설치, 가상현실(VR)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작품, 디지털 플랫폼 등은 예술 작품과 관객 사이의 연결을 촉진하고 예술

의 영향력 확대에 도움을 준다. 전자장치 내지는 디지털 매체, 기타 기술적 도구들이 예술의 과정과 결과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사례는 드물지 않다. 미디어아트의 선구자로 꼽히는 제프리 쇼(Jeffrey Shaw)의 '읽을 수 있는 도시'(The Legible City)에서부터 지난 2월 영국 해리워드 갤러리에서 개막한 'When Forms Come Alive'에 참여해 다시 한 번 주목을 받은 스튜디오 드리프트(Studio Drift)의 키네틱 작품 '사이라이트'(Shylight) 등에 이르기까지, 그 수는 셀 수 없다. 여기엔 우리에게도 익숙한 미디어그룹인 에브리웨어(Everywhere)를 비롯해 예술가와 엔지니어, 프로그래머의 집합체인 팀랩(TeamLab) 등도 포함된다. 올라프 엘리아손(Olafur Eliasson), 에바 파브레가스(Eva Fabregas), 랜덤 인터내셔널(Random International), 미셸 블라지(Michel Blazy) 등의 다양한 작업도 마찬가지다. 이

들 작품은 관객들에게 보다 몰입적, 촉각적, 상호작용적인 예술경험을 선사하며 예술가들이 어떻게 기술을 활용해 전통적인 예술 관행을 허무는지를 보여준다. 이처럼 예술과 기술의 결합을 통한 고전적 레거시 아트(Legacy art)에서부터 이머시브 아트(몰입 체험형 예술), 증강현실(AR) 등의 최첨단 도구를 이용한 작품은 장르 간 학제 간 구획 없는 동시대미술의 흐름과도 맞닿는다. 인터랙션(Interaction)을 기반으로 한 사용자 친화적인 미술과, 사람 대 사람의 관계에 방점을 둔 공간인 인터휴먼 스페이스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전시모델이기도 하다. 그러나 예술과 기술의 융·복합은 다양한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부작용도 없진 않다. 그중에서도 주목해야 할 건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예술'에 대한 의미를 간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지 '시각적 만족'에 무게를 두거나 자본주의 시장이 마구잡

이로 전개하는 상업화의 물결 속에서 유명 중인 인스타그램(Instagrammable)한 전시들이 그 예이다. 이는 자칫 '기술이 곧 예술'이라는 잘못된 예술관을 심어줄 수 있다. '기술이 예술의 가치'인 양 여기는 오해의 여지도 있다. 물론 예술가들이 지나치게 도구화되고 의존함으로써 발생하는 고유 자생적 표현 능력의 상실과 피상적 감각체계의 학습에 따른 지적진화의 퇴행을 가져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예술과 기술 융·복합에 대한 관심은 기술주도형 사회에 살고 있는 동시대에선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기술을 작품에 수용하면서 동시대 현실에 공감하고 급변하는 예술 환경에 적응하는 예술가가 증가하는 것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하지만 기술은 어디까지나 시대성을 뒷받침으로 한 미의식을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에 불과할 뿐 예술의 전부는 아니다. /미술평론가



**동아제약, '여성의 날' 맞아 생리대 기부**  
동아제약이 지역사회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을 위한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동아제약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템포 생리대를 기부했다고 7일 밝혔다. 동아제약은 '템포 내추럴 순면 패드'를 서울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와 경북 상주시에 지원했다. /동아제약



**롯데오토리스, 무공해차 전환 우수기업**  
롯데오토리스가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선정한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이하K-EV100)'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김지훈 롯데오토리스 대표가 6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롯데오토리스

## 아이오닉 5 '최고의 가족용 車' 수상

현대차, 페어런츠 어워즈서 선정 PE시스템·미래지향 디자인 평가  
현대자동차는 미국 유력 월간지 페어런츠 매거진이 주관한 '페어런츠 2024 최고의 가족용 차 어워즈'에서 아이오닉 5가 '최고의 가족용 5인승 전기 SUV'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페어런츠 매거진은 부모의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는 아동 발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미국 유력 월간지다. 매년 최고의 가족용 차 어워즈를 진행해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필요한 편의 장비와 안전성을 갖춘 우수한 차량을 선정하고 있다.

페어런츠는 "아이오닉 5는 우수한 파워일렉트릭(PE) 시스템과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갖춰 가족용 차를 찾는 고객에게 탁월한 선택"이라며 "빠른 충전 속도와 우수한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가 강점"이라고 말했다. 또 페어런츠는 가정집에 공급할 수 있을 정도의 전력을 제공하는 V2L 기능과 카시트를 장착한 채 아이를 돌볼 때도 불편함이 없는 넓은 실내 공간 등도 높이 평가했다. 이와 함께 아이오닉 5는 지난 2월 미국 유력 자동차 전문지 '카 앤드 드라이버'가 발표한 '2024 & 2025 최고의 SUV'에 선정되는 등 우수한 상품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한화그룹, 하버드-레드클리프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후원**  
한화그룹이 후원하는 하버드-레드클리프 오케스트라 내한공연이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전주, 통영에서 열린다. 예술의전당 한화와 함께하는 교향악축제와 한화클래식 등 수십 년간 문화예술 후원사업에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온 한화그룹은 하버드-레드클리프 오케스트라의 내한공연을 후원한다. 또 16일에는 통영국제음악제로 잘 알려진 물빛 음악도시 통영에서 한국 투어 대미를 장식할 피날레 공연이 한화그룹 주최로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에서 펼쳐진다. /한화그룹

## 아시아나항공,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

'파리는 어째서' 등 2개 캠페인  
아시아나항공의 '파리는 어째서'와 '지구를 사랑한 비행' 캠페인이 7일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린 '2024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 시상식에서

'좋은 광고상'을 수상했다.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한국광고주협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최하며, 올해는 총 290점이 출품됐다. /양성운 기자

## 최윤 회장, 한일경제협회 부회장으로 선임

(OK금융그룹)  
이번 선임에 따라 향후 3년간 활동한일 경제연계 확대 등 소통창구 역할  
최윤 OK금융그룹회장(사진)이 한일경제협회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OK금융그룹은 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가 '제43회 정기총회'를 열고 최 회장을 협회 부회장으로 선임했다고 7일 밝혔다. 한일경제협회는 1981년 출범했다. 한·일 각 지역 경제단체와 손잡고 경제외교 활동을 추진한다. 최 회장은 이번 선임에 따라 향후 3년간 한일경제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한다. 한일 양국의 경제연계 확대 및 상호교류 증진을 위한 소통창구 역할을 해낼 방침이다. 최 회장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한일 경제협력 강화를 논의하는 자리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후배 기업인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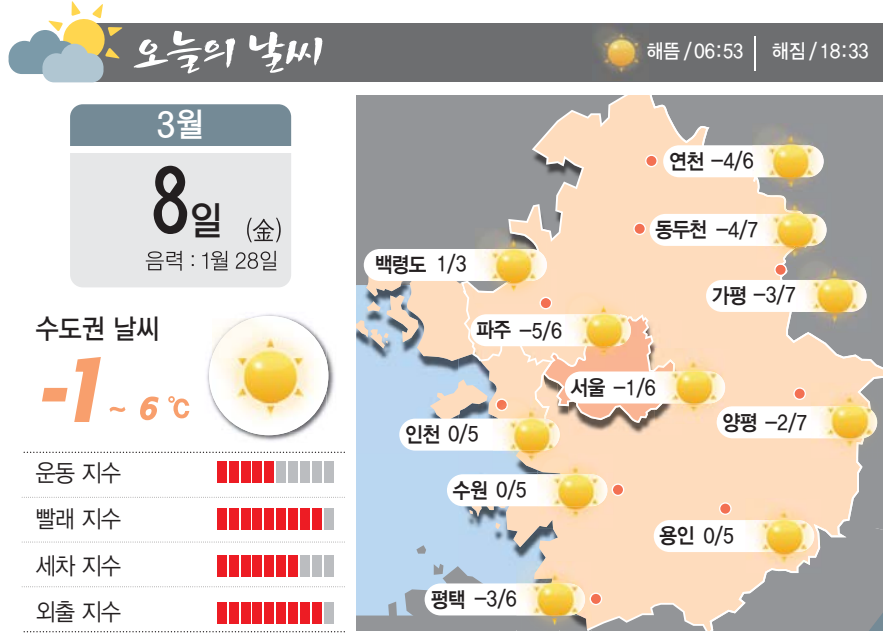
**아모레퍼시픽, '매칭 기프트'로 기부**  
아모레퍼시픽이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부 제도를 올해도 실천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임직원 나눔 캠페인 '매칭 기프트'를 통해 105개 기관에 1억2000여 만원을 기부했다고 7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



**hy, 프레시매니저 격려·소통의 장 마련**  
hy가 제53회 'hy대회'를 개최한다. 1971년을 시작으로 53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프레시매니저(FM)'를 위한 격려와 소통의 장이다. 수도권과 지방을 나눠 일산 킨텍스(7일), 부산 벡스코(14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21일)에서 각각 개최한다. 총 3000명의 FM이 참여한다. /hy

## 최기홍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 표 인지행동치료 학술상 수상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최기홍 심리학부 교수가 지난 2일 인도 의과학대학(All India Institutes of Medical Science, AIIMS)에서 열린 '제8회 아시아 인지행동치료학회'에서 '제1회 아시아 아론벡 인지행동치료 학술상'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최기홍 교수는 "인지행동치료의 보급을 위해 더욱 매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현진 기자 ihj@



- 인사**
- ◆한국연구재단 ◇단장 선임 △생명과학 단장 정기홍
  -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 임명 및 보직 △이수진 기술교육원장 ◇이사 임명 △김재관 인재개발팀장 △박진동 기획조정팀장
  - ◆제주대학교 ◇부총장급 △교육부총장 강희경 △지산학연구부총장 강철웅 ◇처장급 △교무처장 정승달 △학생진로취업 처장 현미열 △기획처장 강태영

- 부음**
- ▲이시영씨 별세, 이규하(국민의힘 부산시장 조직차장)씨 부친상 = 7일,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21온종합병원장례식장 VIP호실, 발인 9일 오전 5시30분. 051-607-0111
  - ▲이종식씨 별세, 이상규(DN솔루션즈)노사/EHS실 노사파트 책임매니저·이재영·이상희씨 부친상 = 7일 오전, 김해시 장유 1동 갑골장유병원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9일 오전 8시. 055-314-5533